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2.(금) 06:00 < 9.2.(금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9. 1.(목)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 진 (044-203-5120)
		담당자	사무관 유재영 (044-203-5125)

산업부 2차관,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

-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대외 천명,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 지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이창양) **박일준 제2차관**은 '22.9.2(금) **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**하여 주요국들과 함께 **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**하고 **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지지**하였다.

< 「G20 에너지장관회의」 개요 >

◇ **일시/장소** : '22.9.2(금) 10:00~18:00 / 화상회의(롯데호텔)

◇ **참석** :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(한국대표), G20회원국(미국, 일본, 영국, 유럽 등), 국제기구(세계에너지기구, OECD, 세계은행 등)

◇ **주요 내용** : 청정에너지 가속화 공동선언문 채택(청정에너지 확산, 에너지공급망 및 안보, 에너지 접근성 확보(빈곤층 지원), 투자 및 금융 지원 등)

○ **금번 회의**에서 주요국들은 **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가중**되는 상황을 고려한 **에너지 공급망 및 안보 강화 필요성에 공감**하면서,

○ 지난해 논의된 청정에너지 필요성에 이어서, **청정에너지 기술개발**, **취약 계층**을 위한 **에너지접근성 확대 지원**,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**투자·금융 지원**에 대해 **각 국의 심도 있는 논의**가 이어졌다.

□ **박일준 차관**은 **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(energy security)와 기후 안보(climate security)를 대응**함에 있어 **매우 중대한 도전**에 처해있음을 평가하면서,

○ 기후변화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**청정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**하며, **글로벌 청정에너지 확대 이행**과 **에너지 안보 강화** 관련 **한국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**하였다.

○ **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단으로** 타 전원과 함께 **원전을 적극 활용**하고, 국내 에너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**재생에너지,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도 지속 확대할 것**이라고 밝히고,

○ **에너지 접근성 확보 차원**에서는 **한국도 취약 계층을 대상**으로 **바우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**하고 있으며, **산업·건물부분의 에너지 효율화**을 위한 **기술혁신도 추진**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또한, **금융·투자 확대 측면**에서 **한국은 청정에너지분야 투자의 일환으로 지난 7월 5,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**하고, **투자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**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

○ 청정에너지 가속화에 핵심인 배터리, 전기차에 필요한 **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**하였다.

□ **G20 회원국**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 공동인식과 목표를 담은 **' G20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' 에 합의**하고,

○ 각 국가들은 **탄소중립 목표달성, 청정에너지 가속화를 위해 폭넓은 상호이해 및 정보교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